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망상도 자성 길러내는 원소요 과정”

### 과학이 영감 따르는 이유

**문** 어느 책에서 보니까 과학의 위대한 발견이란 대체로 영감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실험을 하다가 어떤 느낌이 생기고 거기서 우연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과학도 궁극에는 종교적인 차원과 만나는 얘기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찍이 심성과학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있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과 같은 맥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 꽃 한 송이 피는 것.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까지도 이심전심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물질에 국한해서야 어떻게 그 도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이 길의 진리는 경동공법이라고 관수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놓는 것과 의정 내는 것 차이

**문** 방학하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나 내 속에서 이런 저런 생각이

### “생활이 그대로 禪이고 과학입니다

### 과학의 바탕은 일체 마음에서 나오니

### ‘그 이전’을 간파해야 전체 볼 수 있어요”

**문** 생활이 그대로 선(禪)이고 생활이 그대로 과학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늘 변하고 부서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선이자 과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먼저 나를 발견하고 나아가서는 일체가 되어 아인 줄 알고, 또 둘이 아니게 나누는 도리를 아는 것인데 말하자면 여기까지 되어야 100%를 간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쓰는 과학이라는 말의 뜻은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과학이 되고 갈았다는 말입니다.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할 때, 그만큼 과학이 발달해서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수소폭탄이 있기 이전이 있습니다.

또 천체망원경으로 우주의 구석구석을 보고 천체무선통신으로 다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보고 다 듣는게 아닙니다.

그런 물질차원으로는 전체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면 다라고 하더라도 과학의 바탕은 일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그 이전’을 간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분야가 법에 맞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체 생각을 바라다 보니까 육근 육적이 내 집을 차지해서 휘젓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 자리에서 의정이 자생적으로 나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일체를 놓는 것과 의정을 내는 것이 가끔 혼동이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 일체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걸어다니지만 뒷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짙어지지 않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 그것이지요.

본래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놓고 간다는 말 자체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마음으로 껴잡고 욕심을 두고 집착을 하고... 모두들 그렇게 하니 거기서 좀 벗어나 바라 해서 놓고 가라고 되풀이 되풀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항상 놓고 살라고 말하니 어떤 분은 다 놓고 어떻게 살니까? 하고 되묻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흔히 망상이다. 망상에 이끌린다 하지만 망상이란 말하자면 그대로 자성을 길러내는 원소 자체다.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생각 생각이 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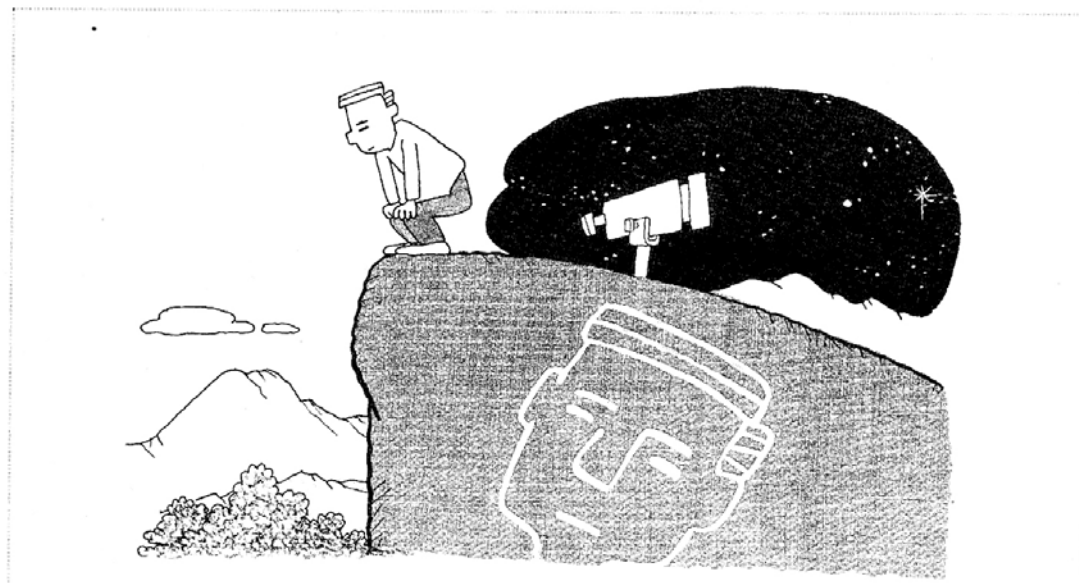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자기가 쳐놓은 거미줄 자기가 벗어나야 스스로 만든 고집에 걸려 넘어지니...

않으면 목석이지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그 관념도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뭐가 하기 이전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끌어 온 주인이 모든 것을, 몸을 시자로 끌고 다니면서 아프게 되면 제 시자를 제가 갖게 할 수 있고 화목하게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체만법을 다 그놈이 하는 일이니 그놈 탓으로 돌려야 하고 그놈으로 해서 모든 길로 이끌어간다는 걸 믿고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놓고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쉬는 그런 것이 진짜 놓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것. 내면에서 그대로 들고 내는 것을 보

세요. 그걸 모르겠거든 들어주고 내주는 들숨 날숨 있지요. 그것이 없다면 죽습니다. 그런데 들고 내고 숨 쉬는 것을 어떤 놈이 하고 있습니까?

생활하면서 방법을 들고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여섯 수역업 광년을 끌고 온 진화의 장본인, 지금도 끌고가는 장본인이 아니라면 그걸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 주인이 있다는 걸 증명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파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말씀드려 온 것입니다.

의정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여태 설명한 대로라면 의정도 대의정이 나오지 일부터 지어서 의정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빈 뱃통을 돌리는 것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예전 한 때에 내게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산 길을 가다가 그야말로 한발자국도 떼어 놓을 수 없는 낭떠러지를 만났는데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발도 떼어 놓을 수 없는데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밖이라도 나갈 수 있는데 마음도리를 배우는 사람이 육신의 길만 찾아서 다닌다면 이젠 서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겠구나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거미줄에 얽혀서 발목을 빼지 못하면 일어설 수도 못하죠. 이런 게 실현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랬는데 마음도리를 안다면 놓고 안 놓고도 없이 그대로, 그냥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들고 내는 그놈이 한다는 그 한가지 믿음만이 남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무뎠던 광대한지 나도 모르게 싱긋이 웃을 때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길을 가다가 무덤 돌이 있는데서 하룻 밤을 묵는데 한 순간에 부모가 자식한테 오면 자식과 하나가 되고 자식이 부모한테 가면 부모와 하나가 되느니라. 그게 무슨 연고이고? 하는 겁니다. 그만 거기에 딱 얽어 붙었는데 한 생각 떠오르니까 하늘보고 웃지 않을 수 없고 땅보고 울지 않을 수 없더라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들 한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체가 전부 업을 짓고 걸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냥 걸어가면 될 것을 내가 걸다가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닐까, 걸리지 않고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모두들 그런단 말입니다.

그 생각에 그만 걸리는 겁니다. 업을 짓고 걷는 거지요.

다리 많은 지네가 서서치 않고 걸어가 건만 여러분은 두 다리로 걸어가면서 그것조차 걸릴까봐 바들바들 떠나가 걸립니다. 본래는 걸릴 게 없으나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잘못이 대두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 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나가는 것을 다스려 놓아야 한다. 그냥 무조건 다 여여하다 해서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을 할 때 남에게 이익되게 말하고 이익되게 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 믿음에 대해서...

**문** 말씀하시는 대로 일체를 놓는 것, 다스려 나가는 것도 결국은 믿음에 귀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 어떻게 믿기는 뭘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있는 거니까 믿어야지요.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 놈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 놈인데, 주인 놈이 과거에도 이끌었고 지금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고공을 믿었어요 이름을 믿었어요? 이 고기덩어리 형상을 믿었소 무얼 믿었습니까?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활용

씨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173)

## 내 마음 속에 인등 하나 흰히 밝히고 살자.

“지켜보라. 자기 발걸음을 지켜보라. 말하는 건 누가 하고, 듣는 건 누가 듣고, 보는 건 누가 보는지 지켜보라. 잘하든 못하든, 하든 안하든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볼 때 그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한군데로 나고드는 주체가 있는 듯이 느껴질 것이다. 한 치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라.”

가. 진정으로 울고 웃고 기뻐하고 괴로워할 것이 있는가를 보라.

마음의 인등을 밝혀라. 날마다 마음의 인등을 켜라. 선(禪)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면서 ‘나’라는 상을 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참선이다.”

우리들의 생활은 대부분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 부에 대한 목마름, 권력·명예·건강 등에 대한 목마름,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면 다 갖고 싶다는 소유의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탐·진·치로 산다.

눈 뜨고서만이 아니라 꿈 속에서조차

탐·진·치의 마음을 쓰며 산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그 속에 나, 나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삶을 거부하셨다. 탐·진·치야말로 자신의 삶을 그르치는 독(毒)이라고 하셨다.

**삼독(三毒)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삶은 어떤 경우라도 괴로움으로 귀착된다. 즐거운 듯 기쁜 듯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뒤 끝은 언제나 고(苦)로 돌아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버리라, 비우라 하셨다. 버리고 어찌 사느냐고 하겠지만 버리면 더 잘먹고 더 잘살게 된다. 삼독의 마음을 덜어내는 만큼 삶은 더 편하고 더 즐거워진다.**

그러니 못 비운 까닭이 없다. 비울수록 삶은 고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 간다는 데 무엇이 두려우랴. 두 눈 부릅뜨고 마음에 불을 밝혀가며 비우고 버릴 일이다. 하루 하루 순간 순간 비우고 또 비울 일이다.

**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며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버리기가 쉽다. 지금까지 삼독**



의 마음이 곧 나의 본성인 줄 알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으니 먼저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버릴 수 있다. 그걸 알면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는 의문도 사라진다.

**먼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라.**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라. 자기의 느낌, 생각, 감정, 지각활동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가 걸고 있는가, 누가 화를 내고 있는가, 누가 울고 웃는가... 그것을 보라. 자기의 몸과 자기의 느낌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보고 자기의 행동을 보고 자기의 의식을 보라.

누가 그것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무엇이 그것들을 생겨나게 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버리지 못한다.

**내가 할 때는 안 보던 일도 남이 하는 것을 바라볼 때는 더 잘 보인다. 내가 두는 장기보다 남이 두는 장기 판에서 서너수가 더 보이게 된다.**

나를 지켜볼 때 그와같이 하라. 나를 거울에 비춰보듯이, 아니 거울 속의 나를 보듯이 그렇게 보라. 그냥 비춰보고

지켜보기만 하라. 게임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바라만 보라. 마음 속에 등불 하나 밝히고 그 등불에 비춰보듯이 그냥 보기만 하라. 더도 덜도 말고 지켜보기만 하라. 그것이 바로 참선이다.

**지켜보노라면 서서히, 조금씩 탐·진·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며 본질이 무엇인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나의 행동 나의 느낌 감정 생각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조금씩 알아채고 조금씩 깨닫게 된다. 그러면 놓치 말라해도 저절로 놓기 시작한다. 버리라 비워라 하지 않아도 절로 버리고 비우게 된다. 거기엔 애씀이 없다. 억지가 없다. 그냥이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

‘어둠까지 바른 길’로 들어섬과 다르지 않다.

24시간 탐진치를 쓰며 살던 나의 삶이 마음에 인등 하나 밝히고 지켜봄으로써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잘 먹고 잘사는 삶이 시작된다. ‘누가 삶을 고라 했던가’ 하게 된다.

협찬 : 故 한갑동